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의 독특한 공존

태화산 마곡사

마곡사는 640년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했습니다. 선조 중엽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예언서 <정감록>은 마곡사가 위치한 공주를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중 하나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8세기경 도의 선사의 제자이며 신라 가지산문의 개창조였던 체징 선사에 의해 큰 사찰로 중흥했다고 전해집니다. 창건부터 예사롭지 않은 인물에 의해 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마곡사는 사굴 산문의 범일 국사, 고려 때 도선 국사, 보조 국사 지눌 스님 등 선종의 개창조와 통일신라부터 수많은 고승들이 머물렀습니다.

고려 명종 때 불일 보조 스님은 폐찰을 중건하라는 왕명을 받고 돌아다니던 중 마곡사의 터를 보고 명당이라고 감탄했고, 도선 국사는 삼재가 들지 않고 천만년 동안 절이 있을 큰 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곡사라는 이름은 보철 화상이 범을 얻어오자 사람들이 삼(參)처럼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곳 경치를 즐기러 오면서 골짜기를 가득 매운 모습이 마치 삼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마곡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대광보전 소실 후 신앙체계 변화

마곡사 대광보전은 고려 시대 때 중건된 것으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는 신앙체계를 구성한 사찰로 짐작됩니다. 가람배치도 대광보전 중심이었습니다. 비로자나불이 화엄사상의 주불이며 선종에서도 많이 봉안하는 점으로 볼 때 마곡사는 화엄 사상 전래와 선 수행 중심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곡사는 조선시대 때 대웅전을 새로 조성하면서 대광보전 중심이었던 가람배치가 대웅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신앙체계 역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마곡사의 가람구성은

은 자력완성수행을 강조하는 대웅전과 화엄사상 및 선 수행의 표상인 대광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전체적인 사찰 배치도 일반 사찰과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천왕문을 지나서 해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곡사는 해탈문이 정문이고 그 다음에 천왕문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왕문으로 들어와 해탈문을 통과해 남원으로 들어가는 사찰 구성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복원 쪽에 불이문이나 해탈문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입니다.

또한 해탈문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금강역사와 함께 배치돼 있어 금강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탈문을 통과하면 사천왕이 배치된 천왕문에 이르게 됩니다. 천왕문 역시 금강역사처럼 거탑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첩된 거탑 수호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곡사 탑은 고려시대 양식으로 보살과 부처님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마곡사 탑의 특징은 상륜부가 중국 원나라의 라마식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상륜부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외국의 최고급 장식이었습니다. 상륜부만 먼 나라에서 가져 온 것으로 보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됩니다.

현재 마곡사는 대광보전이 대웅보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곡사도 신앙체계상 대광보전이 뒤쪽에 배치돼야하나 소실과 복원으로 불가피하게 조성되면서 고유 특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대광보전은 큰 범회를 열거나 범을 설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대웅전은 기도처로서 활용되는 점으로 볼 때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구조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대광보전의 또 하나 특징은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동쪽을 향해 좌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쪽을 향하는 불상배치는 아미타불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비로자나불임에도 이렇게 배치된 것은 내부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려는 선종의 가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법당으로 주불 석가모니불과 협시불로 약사여래불과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웅전이 단독 건축물인



조선시대 복원된 마곡사 대웅보전. 밖에서는 2층으로 보이나 실내는 5층으로 된 건물이다.

대웅전의 싸리나무와 사리나무

반면 마곡사는 중층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높은 석축단 위에 중층의 건물을 조성하니 석가모니불의 위엄이 한층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광보전이 대웅전 앞에 위치한 탓에 대광보전을 지나야 전체적인 위엄이 느껴집니다.

대웅전 내부로 들어가면 예사롭지 않은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은 싸리나무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싸리나무가 이 정도 크기로 자랐다면 대단한 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소나무인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그럼에도 싸리나무라고 전해지는 것은 사찰에서 사리구를 담을 때 사용했던 재질이 대부분 느티나무나 소나무이기 때문에 절에서 사용하는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사리(싸리)나무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웅전 기둥은 또 윤기가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곡사에는 지옥에 가면 열라대왕이 대웅전 싸리나무 기둥을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물어 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 때문인지 예부터 마곡사를 찾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대웅전의 이 기둥을 몇

바퀴씩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설이 전하는 의미는 마곡사가 10승지의 하나임에도 경치만 즐기고 불전에 들어가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을 문책하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글·사진 한지유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화사 극락전 영구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아름다운 등



오색공단등

공 단 등

주름등

종 등

영 가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불교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불교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